

10. 4선언리행에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이 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실현할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현시기 북남사이에서 조성된 긴장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길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는데 있다.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사이의 군사적대립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방담들이 중요하게 명시되어 있다.

북과 남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되어있고 지난 시기 두차례의 무력충돌이 있었던 조선서해해상에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함으로써 이곳을 평화수역으로 만들는데 대한 문제, 현 정권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북과 남이 종전선언을 위해 협력해나갈데 대한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만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했다면 조선반도의 군사적대립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위업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을것이다.

그러나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집권하기 바쁘게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와 10.4선언리행의 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전 《정권》이 합의한것을 새 《정권》이 《리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10.4선언리행을 로골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들은 10.4선언의 평화조항과 관련해서는 《북방한계선의 무력

화》이므로 《안보체제에 문제가 생긴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고 10.4선언발표기념행사마다에는 보이코트하면서 북침전쟁연습장을 찾아다녔으며 비라살포행위를 재개하는 등 동족대결방선자로서의 정체를 날날이 드러냈다.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면서 북과 남의 대결을 악화하게 고취해나선 보수세력의 책동은 이에만 고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은 2010년에 있는 모략적인 합선침몰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구실로 북남관계를 과격으로 몰아넣으면서 외세와 각종 규모의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았다. 한편 허황하기 그지없는 《흡수통일》야망에 사로잡혀 《통일항아리》라는것까지 들고나와 체제대결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남조선당국의 10.4선언부정책

동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의 지향과 념원속에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6.15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연습장을 찾아다녔으며 비라살포행위를 재개하는 등 동족대결방선자로서의 정체를 날날이 드러냈다.

민족의 운명과 전도에 대한 초보적인 일각전조는 현 보수집권세력이 전쟁소동과 동족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는 언제 가도 보장될수 없으며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문제의 해결도 기대할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오는 12월에 있게 될 《대선》에서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것을 결의해나서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란시키고 10.4선언을 리행하는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이 있다.

김연희

우리 겨레가 견지해야 할 기본립장

북남관계가 일제기 있어보지 못한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는 오늘 우리 겨레가 내외 분열주의세력의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앞당겨오기 위해서는 민족중시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중시의 외세에 의해 분열과 전쟁위험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겨레가 항시적으로 견지해야 할 기본립장이며 좌우명이다.

민족중시의 립장은 외세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중시하며 외세의 리익보다 자기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시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관점과 립장이다.

모든 문제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원칙을 양보하지 않으며 외세의 그 어떤 압력이나 공갈에도 굴함이 없이 민족공동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것은 견결한 민족중시립장의 발현으로 된다.

민족중시의 자세와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조국통일위업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만일 외세의 눈치를 보며 그에 추종한다면 언젠가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자기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로 굳게 뭉친 겨레를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민족중시는 그 어떤 계층의 리해관계에 앞서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기초하여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해나갈수 있게 한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은 집권후 오늘까지 《군건한 《한》 미공조》와 《미제지향적인 《한》 일관제》를 떠들며 외세와의 종속관계를 더 중시하고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겨왔다. 남조선의 현 《정부》가 집권초기에 통일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외교통상부안에 넣고 없앴는 외세공조를 절대시하면서 동족은 적대시하고 대결하려는 기도를 그대로 드러낸 하나의 실례이다. 바로 며칠전에도 남조선보수당국이 서울과 도꾜에서 《《한》 미차관급전담대화》, 《《한》 미 13자외무회담》 나 하는것들을 벌여놓고

상선들과 함께 반공화국모략소동에 광분한것은 뼈속까지 배인 보수세력의 사대매국기질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지 않고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대결책동에 의해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통일운동단체들이 《리적단체》, 《중북세력》으로 락인되고 통일애국인들이 《간첩》의 무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가는 비극적인 현실이 공공연히 펼쳐지고있다.

그 어느 외세도, 그 어떤 리념도 자기 민족보다 우위에 놓일수 없다. 모든 문제에서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외세의 어떤 압력과 공갈에도 굴함이 자주적대와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을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온 겨레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성,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며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동족보다 외세를 중시하고 민족공동의 위업보다 외세와의 《공조》를 우선시하여서는 북남관계발전과 동족사이의 진정한 신뢰와 화합을 이룰수 없으며 그것은 분열의 심화와 긴장각화의 결과만을 초래할뿐이다.

역사와 현실은 민족중시의 립장에 서는 거 서지 못하는가 하는것이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얼마나 중대한 문제로 나서는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통일과 분열, 예국과 매국, 전쟁과 평화가 랑립될수 없는것처럼 민족중시와 외세의 존은 결코 랑립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중시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배격하고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한다.

라광철

금강산 신계사복원 5돐기념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합동법회 봉행

금강산 신계사복원 5돐기념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합동법회가 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되었다.

합동법회에는 북측에서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교직자들과 신계사의 승려, 신도들이, 남측에서 불교조계종 승려, 신도들이

참가하였다.

합동법회에서는 불교례식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 공동발원문이 봉독되었다.

연설자들은 북남불교도들이 힘을 합쳐 훌륭히 복원해놓은 신계사가 민족의 단합과 통일, 금강

산으로 향한 겨레의 념원을 달가와하지 않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방해책동으로 옹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북과 남의 불교도들은 불심화합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

행함으로써 금강산신계사를 불법이 넘쳐나는 민족화합의 도장으로 만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동발원문에서는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길을 따라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경구내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행동에 적극 떨쳐나서려는 북남불교도들의 결의가 천명되었다.

본사기자

《부업》으로 연명하는 통일부

아래의 글은 남조선의 인터넷 《통일뉴스》에 실린 글이다.

《요즘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지낼까요?》

문득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와 남북교류를 업무로 하는 통일부가 개점휴업상태이니 필히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를 잘 알았다면 리명박 《정부》 초기에 나았듯이 통일부를 폐지하는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리명박 《정부》의 당선자 시절, 《대통령》 직인수위위원회가 통일부를 축소하거나 외교통상부에 통합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현 《정부》 축이 선견지명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때도 당시 야당을 비롯

해 북문제전문가들이나 대북지진, 통일운동단체들이 크게 반발해 통일부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는데 리명박 《정부》 5년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자업자득의 면이 큼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 리행은 남북대화개개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에 대해 한번도 명확히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북측이 움츠러들 리가 없습니다.

나아가 《5.24조치》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착오로 작용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를 해제했어야 하는데 마냥 유지만 하다나니 명분도 잃고 시기도 잃은것입니다.

마침 류유익 통일부 장관이 요즘 필하면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니까에 업무시간의 상당부분을 《특강》

에 할애하고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실소를 하고말았습니 다. 류장관의 금주 중요 일정이 다섯개인데 그중 세개가 공개 또는 비공개특강이라는것입니다. 《본업》인 남북대화는 전혀 못하고 《부업》인 무슨 강의만 하니 통일부 장관도 고역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장관은 취임초 《류연성》 이야기를 하며 왕성하게 남북관계개개의 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5.24조치》라도 풀고 대화개개를 모색해야 했는데 그것마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남북대화단절원인을 북측에 전가합니다. 그러는통에 《5.24조치》는 유명무실화됐고 어느덧 임기말이 되었습니다.

무엇이고 할수 있는 기회도 시간도 잃었습니다.》

본사기자

광주대학살을 재현하려는 위험한 음모

최근 남조선군부가 《중북세력실체표준교안》이라는것을 제작하여 전국에 내려보냈다.

이 《표준교안》에는 《중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의 대남전력포선을 명증하는 리적세력으로 분명한 우리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되어있는가 하면 조국통일범민청년학생련합,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등의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들이 《리적단체》로 명시되어있다.

국방부 장관 김관진의 승인을 받은 이 《표준교안》은 지금 모든 남조선군부대들과 신병훈련소, 군부의 교육기관들에서 《정신교육》에 리용되고있다.

오늘 남조선군안에서 벌어지고있는 《중북교육》소동은 당면한 《대통령선거》에서 군부의 표를 《새누리당》에 몰아주는것과 함께 남조선군을 통일애국진보세력단위에 내몰기 위한 보수세력의 위험한 음모가

실행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말해 주고있다.

현 보수당국이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중북세력척결》소동은 지난 5월 리명박역도가 《북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중북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망발한 후 더욱더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군의 일선부대들 대들에 배포된것은 남조선의 진보 개혁세력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보수세력의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며 《제2의 광주죽어》를 예고하는 위험한 전조적이다.

지난 1980년 광주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이 군사파쇼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봉기를 일으켰을 때에도 군사파

대들에 배포된것은 남조선의 진보 개혁세력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보수세력의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며 《제2의 광주죽어》를 예고하는 위험한 전조적이다.

지난 1980년 광주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이 군사파쇼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봉기를 일으켰을 때에도 군사파

대들에 배포된것은 남조선의 진보 개혁세력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보수세력의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며 《제2의 광주죽어》를 예고하는 위험한 전조적이다.

지난 1980년 광주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이 군사파쇼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봉기를 일으켰을 때에도 군사파

《보안법》에 대한 립장을 밝히라

지난 11일 서울에서는 《보안법 폐지국민련대》, 《보안법 긴급대응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관련 《대통령》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지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오현 《민가협람성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이전 《정권》에서는 합법적으로 통일운동을 한 단체가 모두 감옥에 가있다.》며 《《보안법》은 생긴 이후 수많은 사람들을 사법살인하고 감옥으로 보내고

올바른 정의와 평화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이를 두고서는 자주통일도 민주주의발전도 인권개선도 바랄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우리는 다시 《대선》을 맞게됐다. 지난 5년동안 리명박 《새누리당》의 반북대결정책을 엄중히 심판하고 평화통일지향의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날을 기대하게 된다.》면서 《이번에는 《보안법》을 폐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공안기구들을 없애고 구속된 모든 랑성수들을 즉각 석방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리

사는 《《대선》 후보로 나온 유력후보들은 국민대통령을 말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 색깔론, 중북론쟁, 국민들 갈등을 조장하는것이 누구냐. 《보안법》을 폐지시켜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재산사건》 피해가족들도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고, 권력파명예를 위해 분열시키는 법이 《보안법》이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잘못된 범죄자로 모는 이 법은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오고 같은 민족이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본사기자

당국의 대결정책을 단죄

남조선 인터넷신문 《자주민보》가 5일 《정부》의 동족대결정책을 규탄하는 대표 리창기의 유증편지를 실었다.

그는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 《정부》의 대결정책에 대한 비난이 높아가고있는 데 대해 언급하였다.

각계층 국민들과 남북관계전문가들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일변도는 문제가 있다.》, 《《5.24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며 심지어 보수분자들까지도 북과의 대화를 차단한것이 문제라고 하고있는 정도라고 그는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그 무슨 《원칙을 깨우쳐준 정책》이니 뭐니 하고 껀변을 늘어놓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그는 현 《정권》이야말로 북과의 대화상대가 될수 없으며 조선서해 등지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국민앞에 머리 숙여 반성해야 하며 남북관계발전을 그토록 주장하는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보안법》으로 피혜되는 모든 랑성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그 무슨 《원칙을 깨우쳐준 정책》이니 뭐니 하고 껀변을 늘어놓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그는 현 《정권》이야말로 북과의 대화상대가 될수 없으며 조선서해 등지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국민앞에 머리 숙여 반성해야 하며 남북관계발전을 그토록 주장하는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보안법》으로 피혜되는 모든 랑성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그 무슨 《원칙을 깨우쳐준 정책》이니 뭐니 하고 껀변을 늘어놓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그는 현 《정권》이야말로 북과의 대화상대가 될수 없으며 조선서해 등지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국민앞에 머리 숙여 반성해야 하며 남북관계발전을 그토록 주장하는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보안법》으로 피혜되는 모든 랑성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의 파국을 몰아온 원흉 (2)

반통일적 《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데는 집권초기부터 남조선 보수당국이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비핵, 개방, 3000》을 그 무슨 《대북정책》으로 내놓고 북남관계단절에 혈안이 되어온데 있다.

이른바 《비핵, 개방, 3000》은 공화국의 《혁원전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념두리로서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과격으로 몰아넣은 반통일선언이다.

리명박은 집권기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남관계를 한치도 전진시킬수 없다.》느니, 《《선책포기》니, 《《비핵, 개방, 3000》에 립각한 일관한 보수당국이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고 공영과 공리를 위한 다방면적인 북남협력사업들이 차단되는 등 북남사이에는 헤아릴수 없는 비극적사태들이 산생되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그를 성실히 리행할것을 요구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사를 무시하고 반동적인 《비핵, 개방, 3000》만을 끝없는 고집해는 리명박역적책동에 의해 6.15시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되고 통일의 근본리념과 원칙들이 전면부정되었으며 북남사이에서 채택발표된 모든 합의들이 무효화되었다.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데는 집권초기부터 남조선 보수당국이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비핵, 개방, 3000》을 그 무슨 《대북정책》으로 내놓고 북남관계단절에 혈안이 되어온데 있다.

이른바 《비핵, 개방, 3000》은 공화국의 《혁원전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념두리로서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과격으로 몰아넣은 반통일선언이다.

리명박은 집권기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남관계를 한치도 전진시킬수 없다.》느니, 《《선책포기》니, 《《비핵, 개방, 3000》에 립각한 일관한 보수당국이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고 공영과 공리를 위한 다방면적인 북남협력사업들이 차단되는 등 북남사이에는 헤아릴수 없는 비극적사태들이 산생되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그를 성실히 리행할것을 요구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사를 무시하고 반동적인 《비핵, 개방, 3000》만을 끝없는 고집해는 리명박역적책동에 의해 6.15시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되고 통일의 근본리념과 원칙들이 전면부정되었으며 북남사이에서 채택발표된 모든 합의들이 무효화되었다.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데는 집권초기부터 남조선 보수당국이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비핵, 개방, 3000》을 그 무슨 《대북정책》으로 내놓고 북남관계단절에 혈안이 되어온데 있다.

이른바 《비핵, 개방, 3000》은 공화국의 《혁원전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념두리로서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과격으로 몰아넣은 반통일선언이다.

리명박은 집권기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남관계를 한치도 전진시킬수 없다.》느니, 《《선책포기》니, 《《비핵, 개방, 3000》에 립각한 일관한 보수당국이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고 공영과 공리를 위한 다방면적인 북남협력사업들이 차단되는 등 북남사이에는 헤아릴수 없는 비극적사태들이 산생되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그를 성실히 리행할것을 요구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사를 무시하고 반동적인 《비핵, 개방, 3000》만을 끝없는 고집해는 리명박역적책동에 의해 6.15시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되고 통일의 근본리념과 원칙들이 전면부정되었으며 북남사이에서 채택발표된 모든 합의들이 무효화되었다.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데는 집권초기부터 남조선 보수당국이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비핵, 개방, 3000》을 그 무슨 《대북정책》으로 내놓고 북남관계단절에 혈안이 되어온데 있다.

이른바 《비핵, 개방, 3000》은 공화국의 《혁원전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념두리로서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과격으로 몰아넣은 반통일선언이다.

리명박은 집권기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남관계를 한치도 전진시킬수 없다.》느니, 《《선책포기》니, 《《비핵, 개방, 3000》에 립각한 일관한 보수당국이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고 공영과 공리를 위한 다방면적인 북남협력사업들이 차단되는 등 북남사이에는 헤아릴수 없는 비극적사태들이 산생되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그를 성실히 리행할것을 요구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사를 무시하고 반동적인 《비핵, 개방, 3000》만을 끝없는 고집해는 리명박역적책동에 의해 6.15시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되고 통일의 근본리념과 원칙들이 전면부정되었으며 북남사이에서 채택발표된 모든 합의들이 무효화되었다.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국방부의 《중북교육》늘음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본사기자 윤현주

《내곡동특검》의 화살은 어디로

최근 남조선에서 집권자가 려루린 대표적인 부정부패범죄자인 내곡동주재매입부정사건에 대한 《특검수사》가 시작되고 BBK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폭로되어 보수매당이 국도의 궁지에 몰리우고있다.

알려진것처럼 내곡동주재매입부정사건은 리명박이 퇴임후 쓰고살 집을 마련했다는 구실밑에 서울 내곡동의 2600여㎡의 부지를 비법적인 방법으로 구입한 부정부패사건이다.

이 사건은 폭로되자마자 여도와 그의 아들이 직접 개입한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경악을 자아냈으며 결과 철회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강력히 울려나오게 되었다.

그러하여 사건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남조선검찰은 리명박 등 사건혐의자전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는 엉터리수사결과를 발표

해버리고말았다.

이렇게 되어 남조선인민들과 야당들에서는 《전형적인 파주기, 면피부사사》, 《술한 의혹만 남긴 내곡동사건》이라는 비난과 함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게 되었다.

결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특검법》이 매우 부당하고 추천과정도 편파적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오그랑수를 부리던 리명박이 벌수없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건이다.

10월 16일 《특별검사》 그루빠는 리명박의 아들과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10여명에 대해 출구금지조치를 취한데 이어 다음날에는 리명박의 큰형 리상은의 사무실과 집 등 6곳을 압수수색하였다.

앞으로는 남조선력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예견되고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남조선인민들은 부정부패의 원흉인 리명박이 겪어야 할 응당한 봉변이라 하고 하면서 여도는 발뺌질을 하고있지만 저지른 죄과는 꼭 밝혀질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하고있다.

그를 립중이나 하듯이 17일 남조선방송 《MBC》는 지난 6월 관련자들을 전원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라는것을 입수해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리명박의 아들 리시형은 《여러가지 편의 상 사저부지를 먼저 네 명의로 취득했다가 사저권립무렵 내가 재매입하는게 좋겠다.》는 예비의 말을 듣고 지키는대로 했으며 여기에 쓴 돈도 《부친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마련했다.》고 진술한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남조

선언론들은 이는 내곡동주재매입부정사건에 리명박이 깊게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10월 15일에는 미국의 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에 물의를 일으켰던 BBK사건의 주범은 리명박이며 당시 남조선검찰이 집권자와 관련된 부정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깔아뭉갠다고 폭로했다.

지금 여도매당은 이에 대해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검찰과 《특검》을 통해서 살살이 수사한 사안》이라느니, 《근거없는 주장》이니 뭐니 하고있지만 남조선의 많은 사람들은 이를 전혀 믿지 않고있다.

그것은 리명박이 일찍부터 금전에 특특히 맛을 들인 자로서 돈을 위해서라면 위법행위도, 권력탐용도 식은죽 먹듯 하는자이기때문이다.

꼭지에서 부은 물이 발뺌 굴지로 흐른다고 리명박의 족속들과 측근들속에서 드러난 부정부패행위들은 또

얼마인가.

여도의 《정신적소승》이라 자처하던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의 불법 《대선》자금사건, 전 《국회》의장 박희태가 시인한 2008년돈봉투사건,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영준의 금품수수사건 등은 모두 리명박의 수적으로 불리우던 최측근인물들속에서 터져나온 더러운 부정부패사건들이다.

올해에 들어와서 부정부패로 구속되었거나 조사받은 리명박의 측근들과 친인척만 해도 근 20여명에 달한다고 하니 리명박이야말로 부정부패의 원흉, 패륜패덕의 주범이 틀림없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리명박 《정권》을 가리켜 《도적적으로 완벽 한 《정권》》이라고 하면서 여도를 《탄핵》시켜야 한다고 분노하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색을대로 색고 병든대로 병든 부패원흉 리명박의 목숨은 이제 남조선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정세적화를 노린 위험한 공모판

최근 미일상선들과 야합한 리명박보수매당의 부분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있다.

역적매당은 지난 16일 서울에서 미국과 차관급전략대화를 진행한데 이어 17일에는 도쿄에서 미, 일, 남조선3국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또다시 벌려놓고 《북핵문제》와 《조선반도상황의 안정적관리》를 운운하면서 반공화국대결조건을 모의하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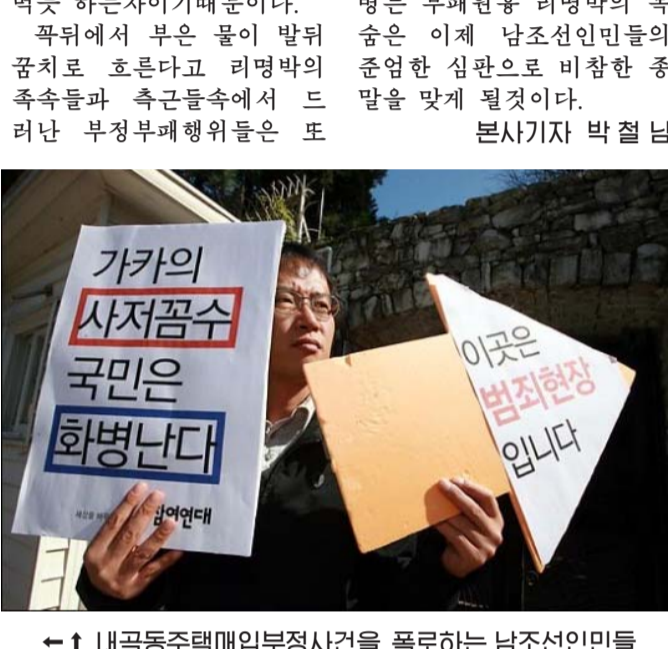
이는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적으로 끌어가기 위한 새로운 도발적계를 꾸민 위험한 공모판으로서 스쳐지날수 없는 또 하나의 반공화국도발행위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에서는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세력들사이에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공통적인것은 《선거》에 나선 후보들모두가 리명박 《정권》의 대결적이고 호전적인 《대북정책》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이 당선되는 경우 공당으로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펴나 가겠다고 《공약》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 5년간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아넣고 삼천리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최대열점지역으로 만들어놓은 리명박보수매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와 규탄의 반영인 동시에 역적매당을 돌격대로 앞세운 미국과 일본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정책의 총과 산을 의미한다.

배영일



← 내곡동주재매입부정사건을 폭로하는 남조선인민들

얼마전 남조선의 리명박이 연평도를 찾아갔다.

이른바 《안보점검》을 위해서라고 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 아닌가 싶다.

지금 정치권에서 《새누리당》이 《대선》경쟁세력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초점의 하나가 서해문제이기때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새누리당》도와주거라는 평이 나온다.

내곡동주재매입부정사건, BBK사건 등으로 《식물대

《새누리당》이 북을 울리면 MB 《정부》는 칼춤을

《새누리당》이 된 리명박이다.

퇴임후의 안식처를 위해 《새누리당》에 아첨하는것인가.

이런본은 아니다.

《새누리당》에서 《중북》소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MB 《정부》는 진보세력에 대한 《보안법》 탄압을 강화했다.

결과 통합진보당이 분열되고 최근에는 평동사 지역 사무실과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의 집이 압수수색당하고 북인터네트를 보았다는 《죄》명으로 대학생이 구속되었다.

《새누리당》에서 《북인권》소리가 나오면 MB 《정부》는 《통일합의

리》를 들고 남조선전역을 돌아다닌다.

지어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탈북자》라는것들을 내고 세워 《대북베라살로》를 벌린다.

《안보위기》소리가 터지면 전정연습을 더 광란적으로 벌리고...

리명박의 이번 연평도행도 그의 연정일뿐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력대 최악의 안보무능 《정권》인 리명박 《정부》가 여당이 만들어놓은 《색갈론》정정의 한복판에 개입》했다고 하는것은 우연치 않다.

《중북》, 《안보》, 《북인권》

《새누리당》이 북을 울릴 때마다 MB 《정부》는 그 강단에 맞추어 칼춤을 춘다.

신, 구보수세력의 제인 안삼불이 아니라 보수세력권을 위한 계획된 공모격략이다.

김정혁

남조선에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기간 음식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물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원 8명이 지난 11일 《국정감사》도중 서울 여의도의 어느 한 료리집에서 《피감기관》상승인물들로부터 광어, 도미, 농어회가 포함된 점심식사를 제공받았다는것이다.

받아먹기에 이골이 난 《새누리당》패거리들이나 그럴만도 하다.

남조선에서 이른바 《국정감사》라든가 《국회》가 행정부 활동 전반에 대하여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법》적으로 저촉되는 활동들을 《통제》하고 《추궁》하는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이를 밝혀낸다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국정감사》도중에 조사를 받아야 할 기관성원들로부터 음식접대를 받았으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뻔한것이다.

못 먹을것을 먹으면 토하기마련이듯이 음식접대를 받은 《새누리당국회》의원들의 이번 《국정감사》라는데가 아무런 결과도 없이 유야무야되었으리라는것은 너무

나 뻔하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규탄하면서 《감시와 견제를 망각한 《새누리당》의원들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가관은 공작점심을 꿀꺽 삼킨 의원들의 대다수가 식중독에 걸려 배아픔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간것이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의원들은 변한 농어회를 먹었기때문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농어회가 변해서가 아니라 부정부패, 부화방탕을 상습으로 여겨온 《새누리당》패들의 못된 악습의 필연적결과라는데는 남조선인민들의 평이다.

도적질하는 버릇 개 못 준다고 《새누리당》이 아무리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며 《부정부패척결》을 부르짖어도 결코 민심을 속일수 없다. 이번의 음식접대로 일어난 사건은 오물당, 《새누리당》의 진면모를 보여주는것이다.

《새누리당》의원들이 지금은 식중독에 걸려 아우성치지만 앞으로는 분노한 남조선민심의 심판대우에서 목이 걸려 종말을 고할것이다.

김철호

단풍 구차한 변명

단풍이 붉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북을 울리면 MB 《정부》는 그 강단에 맞추어 칼춤을 춘다.

신, 구보수세력의 제인 안삼불이 아니라 보수세력권을 위한 계획된 공모격략이다.

김정혁

다시 더진 《정수장학회》분체

최근 남조선에서 《MBC》방송경영진과 《정수장학회》 관련자들이 비밀리에 만나 《정수장학회》의 재산문제를 놓고 협의한 사실이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논란거리로 되고있다.

이미 폭로된데 의하면 이 비밀모임에서 그들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주식의 30%를 팔아 경상남도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문제에 리용하고 《부산일보》의 주식 100%를 팔아 그것으로 부산지역의 로인들에 대한 《복지》에 리용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고 한다.

《대선》을 불과 60여일 앞두고 벌어진 모의소식에 접한 남조선의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사회각계에서는 《정수장학회》는 《5.16쿠데타》 이후 김지태 씨로부터 장악에 의해 《현남》 받은것》이라며 《정수장학회》가 《MBC》주식 30%, 《부산일보》주식 100%를 매각, 처분해 특정지역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를 위해 선실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것을 있을수 없는 일이다.》

《왜 남의 재산을 착취해서 《선거》비용으로 쓰려고 하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나오고있다.

따지고보면 《정수장학회》문제는 이번이 처음 제기된것이 아니다.

알려진것처럼 《정수장학회》는 《5.16군사쿠데타》 이후인 1962년 당시 박정희군사 《정권》이 부산지

역 기업인이었던 김지태가 운영하던 《부일장학회》를 총칼로 불법적으로 강탈한것이다. 이후 《부일장학회》는 《5.16정변》로, 지금의 《정수장학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런 《정수장학회》문제인것으로 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파쇼독재세력들은 《정수장학회》가 《국가》에 《헌납》된것이라고 주장하며 아직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강탈한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팔아 이번의 《대선》에 리용하겠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날강도적인 심보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전의 《유신》독재자도 1971년 《대선》때 《정수장학회》를 팔아 저들의 《선거》자금으로 리용하려고 획책하였었다. 이렇게 놓고보면 41년전의 력사를 재현하는 《새누리당》 후보야말로 파시 《유신》독재자의 후예이다.

지금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이번의 사태를 놓고 그것이 《정수장학회》의 내부문제인것처럼 묘사하면서 《새누리당》 후보와 《정수장학회》문제는 아무런 연인이 없다.》느니, 《이번 《대선》과는 관련이 없는 야당의 정치공작》이라느니 뭐니 하며 아닌보살을 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민심을 오

도하는 한갓 기만극이다.

예로부터 매들을 맨자가 그것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유신》독재자가 총칼로 《정수장학회》를 강탈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애당초 산생조차 하지 않았을것이다. 부모가 매들을 지었다면 그 자손이 그 매들을 푸는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후보는 제 예비가 매놓은 《정수장학회》 매들에 대해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하니 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 하지 않을수 없다.

어디 이뿐인가.

지금 《정수장학회》는 《유신》독재부활의 도구로 활용되고있다. 현 《새누리당》 후보를 비롯하여 력대로 《유신》독재자의 친인척, 측근인물들이 《정수장학회》의 리사장직을 차지하고 《유신》독재를 찬미하고 부활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온 사실들은 《정수장학회》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정수장학회》가 경상남도의 대학생들과 로인들을 위해 돈을 쓰겠다고 하는것도 매우의미장한것이다.

지난 시기 보수집권세력의 안방으로 통하던 경상남도지역은 현 리명박 《정권》의 친체법적이며 반서민적인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더이상 그들의 지지기반으로 되지 않고있다. 최근의 남조선 여론조사기관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지역

에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 시기처럼 확고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있다.

이에 급해진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정수장학회》를 내세워 《새누리당》에 반감이 높은 이 지역 대학생들을 《반값등록금》의 미명하에 매수하고 또 《복지》정책으로 60~70대의 로인들을 끌어당겨 지지표를 늘리려 하고있는것이다. 《정수장학회》 리사장인 최필립이 《결승의 날 《대선》》이 다가오는데 나도 한몫 해야 할것 아니요.》라며 《정수장학회》를 팔아 그 돈으로 《새누리당》 후보를 내세우려 한것은 이에 대한 명백한 립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정수장학회》문제를 관련하여 《대선》과 관련이 없는 야당의 정치공작》이라 하고 주장하고있으니 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새누리당》 후보가 이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다시 더진 《정수장학회》문제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제정권야당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만일 이를 묵과한다면 제2의 《정수장학회》가 다시 발생할수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새누리당》의 뿌리 《유신》독재의 최악상을 파헤친다 (3) 친일매국협정을 체결하여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다.

가짜라 : 《그때 얼마를 쓰면 될수 있었는가?》

송병준 : 《1억원정도 쓰면 될수 있었지요.》

가짜라 : 《1억원은 비싸다. 그 절반가량이면 어떤가.》

송병준 : 《22만km의 땅에 2천만의 인구가 무진장한 자원을 가진 한개 나라를 사는 대가가 아닌가요.》

이것은 일본침략자의 두목 가쓰라와 친일매국노인 《일진회》 회장 송병준사이에 벌어진 매국협정을 폭로한 자료의 한 토막이다.

그런데 《을사5적》과 송병준이와 같은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때로부터 60년이 되는 해인 1965년 6월 22일 일본의 도쿄에서는 치욕의 력사가 되풀이되는 놀음이 벌어졌다. 친일주주 박정희에 의해 강도적이고 매국적인 남조선일본 《협정》이 정식 《조인》된것이다.

이날 박정희는 《협정》이 날아오자 너무도 좋아서 즉시 《축전》까지 날려보내는 추태를 부리었다.

그러면 제2의 《을사5조약》인 남조선일본 《협정》은 과연 어떻게 꾸며졌는가.

알려진것처럼 1951년 10월 20일 도쿄에서는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범죄적인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그것은 세계제대실현을 위한 미

국의 대아시아침략계획에 따른것이였다. 하지만 1961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교정상화》를 위한 남조선일본 《회담》은 별로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자신을 《특등일본인》으로 자처하며 이름을 오가모도 미노루라고 고치고 일본군대 장교로 복부하던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가로챈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박정희는 《군사정변》을 감행한 후 보름도 못되는 1961년 6월 1일 외국기자들을 불러다놓고 《옛날의 일은 없었던 일로 흘려버리고 《일본과의》수교를 정상화하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자기의 속생각을 내비쳤으며 리어 7월에 있는 기자회견장에서도 《《한》일관계가 지금까지 부자언론 상대를 계속해 온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정부》는 《한》일 회담을 년내에 일괄 해결할 방침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하여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회담》이 1961년 10월 20일에 6번째로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첫시작을 맨 박정희는 인민들의 항의규탄이 두려워 박교섭과 비밀협정을 벌리는 방법으로 남조선일본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박정희는 조카사위로서 중앙정보부장에

로 있었던 김중필을 비롯하여 일본정객들과 안면이 두터운 오랜 친일주자들을 내세웠다.

추악하고 범죄적인 막후교섭과 비밀협정을 통해 박정희는 《특등일본인》으로 자처하며 이름을 오가모도 미노루라고 고치고 일본군대 장교로 복부하던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가로챈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박정희는 《군사정변》을 감행한 후 보름도 못되는 1961년 6월 1일 외국기자들을 불러다놓고 《옛날의 일은 없었던 일로 흘려버리고 《일본과의》수교를 정상화하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자기의 속생각을 내비쳤으며 리어 7월에 있는 기자회견장에서도 《《한》일관계가 지금까지 부자언론 상대를 계속해 온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정부》는 《한》일 회담을 년내에 일괄 해결할 방침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하여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회담》이 1961년 10월 20일에 6번째로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첫시작을 맨 박정희는 인민들의 항의규탄이 두려워 박교섭과 비밀협정을 벌리는 방법으로 남조선일본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박정희는 조카사위로서 중앙정보부장에

단풍 구차한 변명

본사기자 주광일



단 며 질 사 이 에 정 리 된 랑 장 강 의 새 모 습

락원의 강, 재앙의 강

이른 아침이었다.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보통강반에 아침체조를 하러 나온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나 젓빛안개가 흐르는 속에 아침일찍 운동하러 나온 몇몇의 사람들밖에 없던 보통강반에 술한 사람들이 모여 벽척벽척 걷고있는 것이었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보통강의 모습이었다. (아니, 분명 어제 아침에 내가 본 보통강이 맞는가?) 다가가보니 인민군인들이 허리치는 물속에 들어가 바다파기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보통강정리공사에 착수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쩌면 하루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해제했던 말인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보통강을 락원의 강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입니다.》 락원의 강! 이 말은 나의 가슴속에 큰 여운을 남기며 울렸다. 해방전 해마다 장마철에 조금만 비가 내려도 큰물이 나서 《토성방》으로 불리우던 보통강반일대는 온통 물

바다로 되었고 인민들은 물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감탕을 파냈다. 감탕마대를 두개, 세계적 메고 달리는 군인들을 보니 락원의 강, 행복의 강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될 보통강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웠다. 허나 우리의 한지맥으로 이어진 남조선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조선전력세력이 인민들의 반대와 생활현편에는 아랑곳없이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여 벌려놓은 《4대강정비사업》, 이것이 가져온 결과는 농경지침해와 홍수피해확대, 환경대재앙뿐이다. 거기다 공사기간 각종 사건사고로 생긴 인적, 물질피해와 귀중한 력사유적, 유물들의 대량파괴 등 재난은 헤아릴수 없다. 지난 6월말 시작된 북한강과 락동강의 복조현상은 4대강의 모든 류역으로 확대되어 생활환경을 심히 파괴하고있다. 어머니의 젖물기마냥 수수천천 이 땅을 적시며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온 맑고맑은 강물이 공화국에서는 행복을 노래하며 흐르고있지만 남조선에서는 온갖 재난만을 빚어내고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물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감탕을 파냈다. 감탕마대를 두개, 세계적 메고 달리는 군인들을 보니 락원의 강, 행복의 강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될 보통강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웠다. 허나 우리의 한지맥으로 이어진 남조선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조선전력세력이 인민들의 반대와 생활현편에는 아랑곳없이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여 벌려놓은 《4대강정비사업》, 이것이 가져온 결과는 농경지침해와 홍수피해확대, 환경대재앙뿐이다. 거기다 공사기간 각종 사건사고로 생긴 인적, 물질피해와 귀중한 력사유적, 유물들의 대량파괴 등 재난은 헤아릴수 없다. 지난 6월말 시작된 북한강과 락동강의 복조현상은 4대강의 모든 류역으로 확대되어 생활환경을 심히 파괴하고있다. 어머니의 젖물기마냥 수수천천 이 땅을 적시며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온 맑고맑은 강물이 공화국에서는 행복을 노래하며 흐르고있지만 남조선에서는 온갖 재난만을 빚어내고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단상

달긴깃옷과 잠바옷

특유의 계절인 여름철이 지나가고 풍요함의 계절인 가을이 왔다. 거리의 가로수들도, 산과 들도 푸른빛대신 황금빛으로 단장되는이 계절, 자연만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지고있다. 사람들도 계절이 바뀌자 여름옷으로부터 가을 옷들을 바꾸어입고 나서고있는 것이다. 옷은 사람들의 생활과 떼어 놓을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옷차림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이 돋보이기도 하고 떨어보이기도 한다. 《옷이 날개》, 《그릇은 음식을 따라가고 옷은 사람을 따라간다》, 《미모가 열이면 그중 아홉은 옷》 등 옷과 관련한 속담, 격언이 많은것도 옷이 인간 생활에서 중요시되는 것과 관련된다. 사람들은 자기의 취미와 정서, 기호에 맞게 옷을 해입는다. 공화국의 남성들속에서 널리 사랑받는 옷은 단긴깃옷과 잠바옷이다. 활동에도 편리하고 보기에

도 단정해보이는것으로 하여 누구나 즐겨입는 단긴깃옷과 잠바옷. 사무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 흔하게 보게 되는 단긴깃옷과 잠바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모습은 볼수록 단정해보이고 인품이 돋보인다. 결코 무심히 보이지 않는다. 단정해보이는것으로 하여 누구나 즐겨입는 단긴깃옷과 잠바옷. 사무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 흔하게 보게 되는 단긴깃옷과 잠바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모습은 볼수록 단정해보이고 인품이 돋보인다. 결코 무심히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그처럼 평범한 단긴깃옷을 입고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수수한 농립모를 쓰시고 길가에 자란 잠풀을 뽑으시던 모습, 새로 완공된 유희장을 찾으시여서는 직접 유희기구까지 타보시던 모습, 멀고먼 외진 등대섬까지 찾으시여 아이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던 모습... 인민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는 그의 모습은 그대로 평범한 인민의 모습이다. 령도자와 승결을 같이하고 령도자의 발걸음에 자신의 발걸음을 따라세우며 령도자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가는 공화국인민들은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인신사랑이 어려있는 단긴깃옷과 잠바옷을 그 어느 옷보다도 즐겨입는다. 단긴깃옷과 잠바옷, 평범한 이 옷에 바로 시대의 모습이 비껴있고 공화국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담겨져있다.

김영준

말마친 나는 오래동안 헤여졌던 한 중학교동창생을 만난적이 있었다. 그로 말하면 처녀시절부터 수십년 세월 김정숙평양직공장에서 직포공으로 일해오는 나날 선군시대의 공로자로, 로력영웅으로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소문난 혁신자였다. 뜻깊은 남녀평등권법령 발포기념일을 맞으며 열린 녀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토론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면서 그는 토론회에 참가하고보니 별로 한 일이 없는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앞으로 조국을 떠받드는 뿌리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조국과 인민앞에 큰 공적을 세운것으로 하여 영웅칭호까지 받은 그였지만 스스로 자신에 대해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는 그가 더없이 돋보였다. 그런 그를 보노라니 언젠가 신문에서 읽은적이 있는 《영원히 날개를 접지 않을 천리마를 타고 하늘높이 날아올라 세상을 주름잡는 두 사람의 기수, 조선인민을 대표하는 그들의 한사람은 녀성》이라고 쓴 글이 떠올랐다.

황해남도 삼천군 달천리에 가면 유명한 온천이 있다. 멀고 먼 옛날에 다리부러진 종달새가 날아와 다리를 고치고 날아갔다고 하여 종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달천온천이다. 그 온천은 우리 나라의 명산인 구월산자락에 해발 300m에 달하는 아사봉, 초대봉, 비산 등의 산들에 둘러싸여있다. 달천온천은 500여년전 지리책에도 기록되어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광물질이 희박한 라돈천인 달천온천은 주로 뼈나 관절, 신경계통과 혈관계통질병에 특효가 있다. 북방의 산골에서 온 한 할

새겨보면 전장을 누비는 준마에 무사를 태운 동상은 많아도 한달음에 천리를 내달리는 전설적인 천리마에 녀성을 태운 동상은 일찌기 없었다. 홀려간 력사를 돌이켜볼수록 공화국의 녀성들이 누리는 존엄과 행복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것인지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을 생

수필

대지에 뿌리내린 애국의 꽃들

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이라고 부른다. 이 부류에는 조선의 녀성들만이 누리는 최대의 행복과 긍지가 비껴없다. 인류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에 공화국의 녀성들처럼 남자와 똑같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다 하고있는 녀성들이 있었던가.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불우한 운명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었고 오늘은 조선의 상징인 천리마를 타고 애국

의 힘과 열정을 한껏 펼쳐가고있는 공화국의 녀성들이다. 공화국처럼 녀성혁명가, 녀성군인, 녀성영웅, 녀성일군, 녀성혁신자들이 많은 나라가 또 어디 있으랴.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최희숙, 박복음을 비롯한 수많은 녀성투사들이 혁명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안영

서 완전히 해방하고 인간의 존엄과 참다운 삶을 안겨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 그 품에 운명을 맡기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조국을 받들어가는 자랑스러운 공화국의 녀성들. 태양을 떠나 꽃이 필수 없으며 그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수 없다. 몇해전 《로동신문》지면에는 구룡령에서 한 녀성도로관리원과 그

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머리에 흰서리 내리고 얼굴은 해벌에 그늘있어도 령길위에 순결한 마음을 바쳐가는 그 녀성도로관리원 이야말로 장군님 괴워주시신 아름다운 꽃, 애국의 꽃이다. 이런 꽃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파사로운 사랑속에 오늘 온 나라 방방곡곡에 활짝 피어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녀성들은 누리는 행복과 넘치는 긍지를 노래에 담아 목청껏 노래하고있는것이다.

녀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걸어온 위훈의 길에 수놓을 꽃이라네 정다운 안헤어 누나여 그대들 없다면 나라의 한자리가 비어있으리 녀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 자연의 꽃은 폼다 시든다지만 온갖 그들이 가져진 풍요한 사회주의대지에 뿌리내린 행복의 꽃, 나라의 꽃은 영원히 백화만발할것이다. 김혜숙

백치료에 특효인 달천온천

머니는 추간관탈출증으로 몇해째 일어서지 못하였었는데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일어섰다고 한다. 그럴 정도로 그 약효가 신비하다. 그래서 이곳으로는 해마다 공화국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천치료를 받으러 오곤 한다. 지금 이곳에는 종합적인 광천치료설비를 갖춘 보건성달천영예군인료양소가 자리잡고있다. 리철호 보건성달천영예군인료양소 부소장은 이곳에 인민을 위한 료양소가 세워진것은 1950년대 후반이라고

말하였다. 일제시대에는 온천을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이나 리용하였지 평백성들은 가까이 갈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직후 몸소 이곳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온천이 과거에는 돈많은 자들의 향락을 위한 유희장으로, 돈벌이수단으로 리용되었지만 오늘은 나라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을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이곳에 전쟁시기에 다친 영예군인들을 위주로 하여 일반근로자들이 리

용하는 료양소를 잘 지어주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때 세워진 료양소건물들이 오늘도 굳건히 서있으며 위인의 인민사랑의 전설을 길이 전하고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수십여년세월이 흐르는 동안 료양소는 많이도 변모되었다. 치료설비들은 더욱 현대화되었으며 온탕 건물도 새로 번듯하게 일

떠섰다. 초창기에는 한발에 수십명정도밖에 수용할수 없었지만 지금은 수천명을 받아 치료하고있으며 년간에 그 수는 수만명을 헤아린다. 그 먼 옛날 종달새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서 유명해졌다면 종달온천, 달천온천은 오늘날 백두산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시책에 의하여 해마다 수만명의 환자들을 건강을 회복시키는 유명한 온천으로 국내외에 소문나게 되었다. 본사기자 박금일



